

## 독일의 작업실 지원정책과 창작환경

culture | art

본인이 10여 년 전 독일에 있을 당시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수여하는 예술기금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도 작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랐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책과 제도가 시작되어 매우 기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문혜정

국립 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 거주지와 연관된 독일의 창작지원 현황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서, 각 주가 독자적으로 행정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하는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다. 따라서 독일 전체의 작업실 지원정책과 창작환경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주의 주 정부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이나 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작지원은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 주에 살고 있거나 거주지와 연관된 작가들에게만 지원된다. 그런 이유로 작가들은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예술기금에 응모를 한다.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6곳과 베를린 시의 1곳, 북부 독일의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3곳을 예로 들어본다.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 시 외곽에 위치한 아카데미 솔로스 솔리튜데(Akademie Schloss Solitude)는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7세기 칼 유겐 공작의 여름 별장이었던 곳으로 후기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성이다. 그곳은 슈투트가르트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성 뒤편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설은 45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작가들이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스튜디오 35개와 전시장 3개, 세미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다. 분야는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공연예술, 디자인, 사진, 문학, 음악, 영화 그리고 뉴미디어 등 다양하다. 지원 신청에서 미술대학 졸업 후 5년이 넘지 않았거나 35세 미만의 나이 제한이 있다. 이곳은 생활비로 한 달에 1.000유로씩 지불하며 전시나 프로젝트에 따른 지원금도 나온다. 단 쿤스트스티푸퉁 바덴빌템버그 (Kunststiftung Baden-Wuerttemberg)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쿤스트스티푸퉁 바덴빌템버그는 슈투트가르트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유럽식 빌라(대저택)을 개조하여 사용하는데 시설은 사무실 3개, 전시실, 작가들의 주거 겸용 스튜디오 7개, 관리실, 기록물 보관실 등이 있다. 매년 약 20~30명의 미술, 음악, 문학, 발레, 공연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예술인들을 선정하여 각자 개인별 창작지원금으로 1만 유로를 지급한다. 선정된 작가들에게 개인전과 바덴빌템버그 주의 10여 곳의 시립미술관급의 단체 순회전을 열어준다. 지원은 바덴 주나 빌템버그 주에서 출생했거나 그 주의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은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을 한 경우는 4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작지원금 신청 외에 주거 겸용 스튜디오 신청을 할 수 있다.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1년이나 2년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창작활동을 한다. 그 외에 예술기금 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주관하므로 작가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 차원에서의 예술지원이 있는데 미술대학 졸업 후 개인 작업실을 구할 경우 시에서 매달 스튜디오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는 지원책도 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작가들에게 지급된다.

또 하나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쿤스틀러하우스 (Künstlerhaus)를 들 수 있다. 매년 4명을 선정해 스튜디오를 제공해 준다. 입주기간은 3년이고 매달 50유로를 관리비로 지급한다. 이곳의 특징은 미술대학 정도의 시설이 각 층에 구비되어 있고 전시장도 있다. 인스티튜트 형식



쿤스틀러하우스

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독일의 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

슈투트가르트에 인접한 에슬링겐(Esslingen) 시에서는 플로헨겐(Plochingen) 시에 위치한 옛날 돌 분쇄기 공장을 임대해서 작가 5명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약 400qm의 공간으로 공장에서 찢던 방들을 개조하여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접도시인 슈투트가르트와 접근성을 띠고 있어 지하철로 출퇴근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3년이며 입주기간 끝에는 시에서 전시를 주관해 주며 도록도 발행해 준다.

에슬링겐 시립미술관인 빌라 메르케(Villa Merke)의 부속 건물로 반베르터하우스(Bahnwaeterhaus)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곳은 젊은 작가들을 선정하여 3개월부터 1년 입주를 할 수 있다. 주거, 작업실, 전시실을 모두 갖춘 2층으로 된 작은 건물이다. 위치적으로 근접한 시립미술관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큰 전시가 열릴 때마다 이곳의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는 젊은 작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독일의 국제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베를린의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Kuenstlerhaus Bethanien)을

들 수 있다. 퀴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은 시내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18세기 병원으로 쓰였던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시설은 작가들의 개인 작업 공간인 스튜디오 25개, 전시 장소 3개, 미디어랩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입주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그곳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곳의 특징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와 미술 관련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작가인 경우에는 자국의 추천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 한 후, 퀴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된 작가는 자국의 기관과 연관되어 지원금을 보조받는다.

또한 독일은 작가들을 외국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보내는 지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씨떼(Cite), 로마의 빌라 마사모(Villa Masimo), 로스앤젤레스의 빌라 아우로라(Villa Aurora) 등을 들 수 있다.

3개월 단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퀴스틀러하우스 솔로스 플레쇼브(Kuenstlerhaus Schloss Pleuschow)가 있다. 함부르크 시 외곽에 위치한 자연이 아름다운 농업도시로 그곳에 있는 옛 성을 개조하여 작가들이 작업실로 쓰고 있다. 여러 개의 스튜디오 중에서 4개를 단기입주

3개월 단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퀴스틀러하우스 솔로스 플레쇼브



**독일의 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작가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나라 작가들과 교류를 하며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여러 나라의 현대 미술 작가들을 초대하여 스튜디오 제공 및 생활비와 전시, 도록을 지원해 준다. 생활비는 매월 1,000유로가 지급된다. 퀴스틀러하우스 볼스베데(Kuenstlerhaus Worswede)도 단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브레멘(Bremen) 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생활비는 매월 약 800유로가 지급된다.

퀴스틀러하우스 클로스터 시스마스(Kuenstlerhaus Kloster Cismas)는 킬(Kiel) 시의 외곽에 위치한 옛 수도원을 개조하여 스튜디오로 사용한다. 4개의 스튜디오를 3개월씩 단기입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미술, 문학, 음악 등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 생활비는 매월 약 800유로가 지급되며 전시와 도록은 킬 시에서 주관한다.

독일의 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작가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나라 작가들과 교류를 하며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소도시일 경우는 그 도시의 지역 홍보와 함께 국제화를 실현하는 계기도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독일의 예술지원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스튜디오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작지원금(생활비), 전시, 도록 등을 지원해 준다.

이제 시작인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창작비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한 입주기간을 지원하고 전시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입주기간을 1년이 아닌 최소한 2년으로 하고 전시 지원 면에서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 순회전 같은 기획도 필요하다. 창동과 고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스튜디오들이 생겨서 많은 작가들이 적어도 작업실 걱정은 안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